

# “노래·댄스로 어버이날을 다채롭게”

## 불교계 복지관孝잔치 ‘풍성’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은 벌써부터 케이션과 함께 선물 마련에 한창이다. ‘어떻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모습이 훈훈한 ‘가정의 달’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에 불교계 노인복지관들도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효 잔치 한마당을 꾸리는 데 분주하다. 올해는 어떤 다양한 축제가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지현)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관내에서 ‘제44회 어버이날 기념 문화공연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브라스 콰텟 ‘SHOW’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브라스 콰텟 ‘SHOW’는 2013년 시작된 금관 5중주 팀으로,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모여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즈·팝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고 있다.

관장 지현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 사회 경료호전 사상을 높이고자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02) 564-0108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4일 오전 11시 관내 대강당에서 ‘제1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료축제’를 실시한다. 복지관 회원 및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5월 3일 종각역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18번가 가요리믹스’에서 어르신 한마당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바운스 시즌2’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시즌1 행사 모습.

륭한 어버이상’ 표창,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진노인복지관은 ‘효사랑 나누기한마당’ 일환으로 5월 18일 오후 3시 관내 대강당서 ‘제12회 만수무강 질관순잔치’를 열 예정이다. (02)466-6242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희유)는 5월 6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 경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약 2,500명 어르신들을 초청해 ‘365일 당신이 최고!’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늘푸른예술단의 전통무 시나위, 김용현 성악가의 식전공연, 김정란 경기민요 이수자의 경기민요, 박경희 무용가의 연꽃춤, 원로가수 안다성 공연, 스페셜가 전통민속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어르신

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노래자랑대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노래자랑을 위해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4월 21일 예선전을 실시, 치열한 경합 끝에 15명의 본선 진출자가 무대에 오른다. 심사는 이동훈 작곡가와 이미성 대중가요교실 강사, 관장 최희유 스님 등이 맡는다.

최희유 스님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자비의 마음으로 15번째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있다”며 “지역사회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 6220-8541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5월 3일 종각역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18번가 가요리믹스’에서 어르신 한마당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바운스 시즌2’ 행사를 개최했다. 당일 행사장 입구에는 어르신들이 드레스 코드를 뽐낼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개그맨 이원승·차승환 씨가 사회를 맡은 본 행사는 가요리믹스 DJ 및 트로트 리믹스에 맞춘 어르신들의 댄스타임, 초청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 후원한 조계사·쌍용C&B·한국아쿠르트·하이트·진로·국순당 등 기업들은 미용티슈, 한국아쿠르트 프로젝트 ‘월’, 백세주, 국순당 쌀떡갈리 등으로 구성된 기념품 세트를 마련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지난해 이어 시즌2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어르신들의 주도적 참여가 돋보였다. ‘드레스코드’ 아이디어도 어르신 동아리 대표단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관장 정관 스님은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어르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은 5월 1일 오전 10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어버이날 기념 경료호전 잔치’를 열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이)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 무료급식 및 선물 등을 제공하고 노래자랑 및 초청공연 등을 진행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고국에 대한 그리움, 절에서 달래요”

## 청주 명장사, 재한 베트남불자 법회 성료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불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재한 베트남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었다.

명장사(주지 유정)는 4월 23~24일 경내 법당에서 재한 베트남불자와 베트남 현지 사찰 스님들을 초청해 ‘행복 만들기’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베트남 사찰 전수원·현장사·불암사 스님들과 이주노동자 및 여성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만들기 법회는 명장사 주지 유정 스님과 전수원 주지 티티엔 투언 스님의 인연에 따라 마련됐다.

24일 열린 티티엔 스님은 법회에서 “이국땅에 살고 있는 모국의 수행자들이 밝은 표정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호 덕분”이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일심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동포간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지 유정 스님은 “이국생활에 쓸쓸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고향의 정과 사랑을 전해주는 법회를 열게 돼 기쁘게



4월 24일 청주 명장사에서 열린 ‘행복만들기’ 법회

생각한다”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불자들에게 위도가 되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돕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회에 참석한 베트남불자들은 첫날 법회에 이어 아미타경 염불수행, 기본 교리학습, 좌선 등을 실시했다. 이후 25일에는 경행염불·기념사진촬영 등을 마쳤으며, 26일 부산 삼광사 순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명장사는 유학생 힐링캠프와 다문화가정 예절·다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이슬땀 흘리며 난치병 환아 쾌유 발원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23~24일 조계사에서 3000배 봉행



1700여 명이 익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3000배 정진에 끝까지 임해 수행증을 받았다.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 생명들의 쾌유와 행복을 발원하며 사부대중이 모여 3000배 정진기도를 올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3일 ‘제16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힐링 멘토’ 헤빈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이중 170여 명이 익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3000배 정진에 끝까지 임해 수행증을 받았다.

자승 스님은 지홍 스님이 대독한 처사를 통해 “오늘 철야정진에 임한 여러 분들은 단순한 물질적 보시를 넘어 난치병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공덕을 세우는 것”이라며 “난치병 어린이들이

지혜와 자비의 품안에서 재할될 발원하며, 자비보살행으로 우리 사회가 불국토로 화현되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모금된 치료비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모금액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원 어린이는 치료의 시급성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5년 간 급성림프구성백혈병·망막모세포종 등을 앓고 있는 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철야정진 등 모연을 진행, 8억8000만 원의 모연금을 국내 및 라오스 환아들에게 전달해 왔다. 후원계좌와 하나은행 271-910005-95104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이름 기자

# “국가 치안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경찰전법단, 부처님오신날 기념 ‘자비의 선물’ 나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가 국가 치안에 힘쓰고 있는 경찰을 위해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했다.

조계종 포교원 경찰전법단(단장 지현)은 4월 2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자비의 선물-Thanks Police In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열고, 아침부터 준비한 먹거리 세트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경찰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선 현장에서 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 올해 조계사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한 먹거리 세트는 3000개. 자비의 선물은 경찰청 산하 중앙경찰학교를 비롯해 경찰대학교, 특공대 등 교육기관 및 부대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과 조계사 신도들이 자비의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15곳에 배부됐다. 강남 불은사도 먹거리 세트 4600여 개를 포장해 5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은 “올해 봉축표어가 ‘자비로운 마

음, 풍요로운 세상’이다.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 조계사 스님들이 한푼 두푼 모아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한 뒤 “누구나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

다. 다함께 모여 자비를 실천한다면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 경찰대 불교회장은 “지난해에도 조계사를 비롯한 불교계의 도움으로 자비의 선물을 받았다.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선물이 많은 경찰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환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은 “매년 초파일을 앞두고 두 달 전부터 사찰화대회의를 통해 자비의 선물을 준비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병원·소외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한 지 40여 년 정도 됐다”면서 “이는 세계일화 정신에 따라 여러 꽃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출범한 경찰전법단은 경찰 분청 산하 서울청과 16개 지방청, 지역 경찰서, 경찰대학, 국립경찰병원 등에서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에는 《경찰법요집》 1만2000부를 제작, 무료 배포해 통일된 법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호섭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93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5월 31일까지
- ◆ 개강일시 : 2016년 6월 1일(수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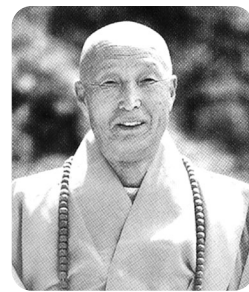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대중불교운동!!

# 법화 보현 관법 수행 지도사 모집

일생 여래 성직자로 함께 할 분 환영



- 출가 수행 과정 : 총본산 및 지역 사원 수행
- 유발 법사 과정 : 수행 후 지역 전도사 수행
- 수행 과정 : ① 지관(자력) 염불(타력) 각 7일  
② 용맹정진(중도삼매) 보현 관행법 21일
- 자격 과정 : 전교사, 전법사, 전도사, 대법사
- 수행 기간 : 5 ~ 6월 중순 입법 예정(수행 후 수계 건당)
- 제출 서류 :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2장

원할시 본 사암에 상주할 승려(비구·비구니), 유발법사(남·녀), 일반신도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수행 참석 기도 중 선신들이 구름때처럼 몰려와 함께 기도  
※적정열반체험 보살 인왕 대선사 직접 지도

총본산 | (재)불교여래종 총본산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기  
☎ 043-731-2261 | 010-9292-4828(명안스님)

대본산 | (재)여래종 대본산 전통사찰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625번길 22  
☎ 031-734-3205 | 016-363-6923(인왕크스님)